진짜 제자 되기 나홀로 훈련

(누가복음 5장 1~11)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진짜 제자 되기 나 홀로 훈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진짜 제자 되기 나 홀로 훈련'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짜 제자도 있다는 전제를 포함합니다.
수료증을 받기 위한 제자 되기가 바로 가짜 제자 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구역장 순장 안수집사 권사 장로 같은 직분을 주기 전에 제자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주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이 소모임에서 성도들을 잘 인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실 때를 보면 아직은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된 진리를 향해 가고 예수님이 주시기로 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길을 찾아가자는 의미에서 '진짜 제자 되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내용에 근거하여 정의를 내리자면 진짜 제자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됨은 예배당 안에서의 모임이나 교인들과의 모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됨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진짜 제자 됨의 우선적인 출발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전문성을 아무리 활용해도 예수님께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제자 됨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쓸모 있는 것을 가질 때에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제자 되기를 바라시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이 조건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조건을 준비하는 것은 참 쉽고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진짜 제자 되기 위한 조건은 나 홀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쓸모 있게 여기시는 진짜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조건과 나 홀로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는 예수님께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진짜 제자 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은 언제 읽어도 참 즐겁습니다. 묵상을 위한 요소를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5절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대답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묵상하다보면 그 의미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구절들에 대한 오해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대화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심리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밀고 당기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찾아온 사람들의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광경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만났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

시기 전에 이미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기 위한 심리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전은 오늘 본문에서 끝이 납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고,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전에 말씀을 전하시고 오셔서 이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에 다시없을 만선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부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또 이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도 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자신을 좋게 보셨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일이 잘 안 될 때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처한 만선의 상황은 어부로써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장부터 있었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심리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할 때에 이 사건과 대화를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 4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부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 흘러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따듯한 기후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고기들은 밤이 되면 따듯한 물가 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도 낮이 아닌 밤에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고기를 못 잡는 방법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순종의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순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저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거의 비꼬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의 출신이셨기에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다는 것을 모르실리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기에 '예'라는 한 마디 대답대신 굳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이라는 긴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답은 순종의 표현이 아닙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지만 5절에서는 선생님으로 부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신기한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 랍비의 한 사람으로써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고향의 사람들로써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는 말에는 차별이 담겨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동료들을 우리로 칭하며 예수님과는 별개의 소속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는 '우리는 어부지만 당신은 목수다'라는 의식이 깔려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수 출신인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라고는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분명히 허탕을 치겠지만 그것은 당신 때문이니 책임을 지십시오.'라는 반항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라는 대답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따랐을 때에 허탕 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확신과는 달리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어부였다면 기뻐해야 마땅할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반항하던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이제 무서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과녁을 벗어나다'라는 뜻의 헬라어 하마르티아에 어원을 둔 말입니다.
과녁을 벗어났다는 것은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가 어긋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의 입장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더러움을 깨달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곧 인간의 마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좋음이기 때문입니다. 떠날 수는 없는데 나의 더러움 때문에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난감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자신들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머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부른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함을 발견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장모의 집에서 예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에 목수 출신의 청년이 랍비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제자들도 없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

은 귀족도 아니었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제자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자 그 기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출 수 없는 목수 출신의 문외 함이 드러났다고 여긴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들이 고기를 못 잡았으면 아무도 못 잡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이 와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마지못해 따랐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임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그 점에 있어서만은 예수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아직 예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한 베드로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베드로의 인생의 가치는 휴지만도 못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어부로써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잡는 능력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휴지처럼 만드는 상황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간임을 알게 된 순간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휴지처럼 버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께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였을 뿐이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시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들을 예수님께 쓸모 있는 자들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었고, 또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의미를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진짜 제자 되기'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야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갖는 의미는 '진짜 제자 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전반과 후반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그렇게 주목된 시선을 끌고 십자가로 가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반과 후반을 나누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앞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공생의 전반부 사역의 목적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었기에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대답을 하였고, 주님께서는 이때부터 십자가 사건을 처음으로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재현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의 십자가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변화산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겪었던 경험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뒤에 모든 인류가 항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공생애의 내용은 예수님께 쓸모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쓸모 있는 제자로 만드시기 위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항구적인 체험으로 유지하는 자들이 바로 쓸모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은 변화산의 체험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변화산의 체험을 재현하면 주님이 바라시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거처는 생각도 못한 채 다만 그 순간이 지속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고백은 가족은 물론이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동료들마저 다 잊어버린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좇으며 땅에서 이루고 싶어 했던 모든 꿈과 목표까지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뵈면서 느낄 때에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머리카락만큼의 소원도 남지 않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쓸모를 제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쓸모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홀로 변화산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변화산의 베드로의 곁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에 대한 증인의 차원에서 함께 참여한 것이지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최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자들을 진짜 제자로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쓸모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쓸모를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쓸모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형통을 위한 용도로 쓸모를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 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생겨납니다. 그 때에 하나님에게 형통을 위한 쓸모를 찾습니다. 건강하고 오래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으면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쓸모를 찾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쓸모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쓸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어떤 소원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목적이 바로 이 변화산의 체험이 모든 사람의 체험이 될 수 있게 하심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모든 사람의 구원의 공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통째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써야만 합니다.
회사에서 사장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쓸모 있는 부모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쓸모없는 자들을 쓸모 있는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공생애를 사셨고, 공생애의 내용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곧 하나님을 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

한처럼 이 세상의 것을 다 잊을 만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하고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뒤집어진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쓸모를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의미도 모른 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쓰고자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기의 거처 따위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써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쓰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을 경험한 제자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들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쓸 수 있으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잊어버릴 정도의 행복과 평강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홀로 해나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변화산 체험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세상을 통째로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몰두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다만 변화산에서는 체험의 내용만이 드러났기에 베드로에게는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갖기를 소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인격적인 선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을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쓸모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로써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취업의 상황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 쓸모 있는 인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취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취업과는 반대입니다. 취직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회장님을 갖는 것입니다. 회장님을 가지라니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가져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는 하나의 기업이고 총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총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능력도 스펙도 필요 없고 오직 총수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쓰십니다. 나를 쓰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스펙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면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애가 생애답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능력이나 지식 혹은 경험 등을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변화산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 년을 하나님께서 나를 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루고 싶어 하던 것들을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써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쓸모 있는 진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야 할 진짜 제자 훈련은 하나님 쓰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 년 내내 목숨 걸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홀로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변화산 체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을 쓰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백분 활용할수록 하나님도 나를 백분 활용하실 것입니다. 2019년은 하나님의 쓸모를 풀가동하는 한 해이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쓸모가 풀가동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쓸모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더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올바르게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께 백분 활용되어지는 쓸모 있는 진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